박원자의 母情佛心 26 최명숙 '보리수 아래' 대표 어머니



▶ 한줄 요약
불교 장애인 단체 보리수 아래를 이끄는 최명숙 대표는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걸음이 수월치 않은 딸을 어머니는 매일 업어 등교시켰다. 그러면서도 "네 스스로 걸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걸음으로 가고 싶은 곳에 갔으면…"



그림 · 박구원

최명숙 '보리수 아래' 대표는 청정한 미소와 담백한 언어로 어머니를 추억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어머니께서도 저리 맑은 모습으로 딸을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순이 넘었다고 하는데 너무 해맑아 보여서 그랬을까. 그녀에게서 뇌성마비 장애로 걸음이 수월치 않은 초등학생 딸을 업고 등교를 시켰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연상됐다. 추운 겨울 어느 날, 찻집에서 이뤄진 인터뷰 내내 가슴이 따뜻하고 뭉클했다. 어머니의 분별없는 사랑이 자식의 일생을 얼마나 견고하고 풍요롭게 하는지를 발견한 자리였다.

열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강원도 두메산골 집에서 난산으로 낳은 아이는 돌이 지나도 목을 잘 가누지 못했다. 팔다리가 제멋대로 움직였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했다. 말도 시원스레 하지 못했다. '어디 뼈가 잘못되었는가' 하고 엄마는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만져보았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 의사가 '조산이라 발육이 늦어서 그러니 기다려 보라' 고만 했다. 더 크면 좋아지겠거니 했다. 태어나면서 뇌손상을 입어 뇌성소아마비라는 것을 초등학교 3학년 때야 알았다.

아이는 여섯 살이 되어서야 겨우 문지방을 잡고 일어섰다. 엄마는 마당에 싸리나무로 울타리를 쳤다. 울타리를 잡고 놀다보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는 훈련도 되겠다 싶어서였다. 까치발 걸음으로 울타리를 짚고 마당 둘레를 몇 번씩 돌며 놀았다.

사립문과 나무 울타리, 집 앞의 개울과 징검다리, 새들이 집을 지었던 뒤뜰, 김매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놀던 고구마 밭은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기 어려웠던 딸에게 좋은 놀이터가 되었다. 자연스레 물리치료 장소도 되었다.

아홉 살이 되어서야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녔던 2층 건물의 작은 초등학교였다. 너무 가벼운 딸을 업고 젊은 엄마가 말하곤 했다.

"엄마는 다른 건 안 바래. 네 걸음으로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 너와 같이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저 아래 절에 사시는 스님께서 그러셨어. 모든 것은 다 네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바른 마음을 간직하고 살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라고, 너에게 이 말을 자주 해주라고 하셨단다."

이 말은 장애로 인해 몸이 자유롭지 못한 딸을 가진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다짐한 평생 기도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간절한 기도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아이의 놀이터가 또 하나 있었다. '지금 네 발로 걸을 수 있어야 나중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던 어머니는 걸음이 몹시 더딘 딸의 손의 잡고 절로 올라가는 구불구불한 길을 오래 걸었다. 훌륭한 걸음 연습이 되었다. 법당에 내려놓으면 아이는 뒤뚱거리면서도 법당 안을 돌아다녔다. 부처님의 얼굴을 만져보려고 불상에 손을 뻗는 아이를 제지하는 어머니에게 그냥 놔두라 하시던 스님의 따뜻한 미소, 절 앞마당으로 따사롭게 내리쬐던 햇살들이 불교에 친숙하게 다가가게 했다.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머니께 들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매일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시다가 농사철이 되자 매일 그럴 수가 없어서 하루는 개울만 건너 주고 혼자 가게 했나봐요. 몇 번 넘어지더니 혼자 잘 가더래요. 그날 운동장에 서서 얼른 들어가라며 손짓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삼십대의 어머니가 장애인 딸을 키우며 느꼈을 아픔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다니던 스님께 맡겨 출가를 시킬까 생각해보신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춘천의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전근하신 아버지를 따라 식구들 모두 서울로 왔다. 서울에서 어머니는 딸 하나와 막내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1남 4녀가 되었다. 어머니는 따로 학교에 찾아가 장애가 있으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았다. 걸음이 이상하다고 놀리는 아이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자식을 붙들고 '네가 참으렴' , 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무심히 대하는 게 강하게 아이의 내면을 단단히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믿음은 학교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는 아이로 만들었다.

동생들이 장애를 가진 언니를 무시하지 않도록 맏딸에게 짐짓 심부름을 시켰다. 설탕 등 소소한 물건이 떨어지면 맏딸을 불러 구멍가게에 가서 사오도록 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 가게 주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언니가 몸이 불편해도 너희들처럼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남들이 무시하는 것보다 동생들이 무시할까봐 염려했던 것을 나중에 커서 알았다.

마을 사찰로 가는 구불구불 길은
걸음 늦은 딸에겐 좋은 연습장소
"스스로 걸어야 뭐든 한다" 강조
52세에 돌아가신 어머니 대신해
맏딸로 동생 키우며 어머니 역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마라."

그래서 체육시간에도 달리기는 했고 철봉은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때만 해도 학교 전체에 소아마비 학생이 서너 명, 뇌성마비 학생은 혼자뿐이었다. 그런데 악동은 어디에나 있는 법, 화장실까지 따라와 놀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속은 상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사랑으로 대해주는 가족과 착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다정한 친구가 나타났다. 가방도 들어주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준비물을 나누어 주었다. 놀리는 아이 열 명에 대한 속상함이 그 착한 한 친구가 상쇄시켜주었다. 불보살님이 보내준 선물 같았다.

그런데 친구들에게 받는 놀림보다 더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은 선생님들의 태도였다. 읽거나 말하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아예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럴 때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몰려오곤 했다. 학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른 중 · 고등학교 때는 더 했다. 아예 무시하고 발표를 시키지 않는 선생님도 있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구나'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선생님도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보다 선생님들의 그런 태도가 심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들었다. 그럴 때 위안을 준 것이 불교 학생회 활동이었다.

가끔 하루가 형편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힘들 때는 동대문에 있던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조계사에 다녀오곤 했다. 포교사로 유명했던 무진장 스님에게 수계한 곳인 조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라앉곤 했다.

지도법사 김재영 선생님이 빌려준 〈불교성전〉은 다 읽지 못했다는 핑계로 여태껏 반납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 책은 재산목록 1호로 간직하고 있다. 불교학생회에서 불교를 배우고 마음공부를 했던 것이 훗날 장애인 불자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어머니께 털어놓진 않았어요?"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대학 면접시험을 볼 때였어요. 시험관이던 교수님이 받아쓰기를 시키듯 문장을 불러주며 글씨를 써보라고 하더군요. 이 학생이 글씨나 제대로 쓸 수 있으려나 하는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저를 아쉬워하던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놀라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한 마디도 안했느냐' 고 하셨어요. 그 뒤로는 대학에 가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죠."

대학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문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뇌성마비 모임을 이끌면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러다가 등단해서 시집을 내었는데 어머니는 글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았다며 무척 기뻐하셨다. 글쓰기가 삶의 모진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딸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 안심하셨을 것이다.

어머니는 쉰두 살에 위암으로 돌아가셨다. 가족과의 너무 이른 이별이었다. 서른 살의 맏딸은 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평소 '장애가 있는 큰언니, 큰누나여도 너희들이 어려울 때 의논하는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씀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잊지 못했던 까닭이다. 그 후로 최 대표는 동생들에게 어머니 역할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생들 학비도 보탰고 혹시 결혼해야 할 동생들에게 자신의 장애가 누가 될까봐 독립해서 살았다.

최 대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5년 동안 한국뇌성마비복지회에서 일했다.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2005년, 장애인 불자모임인 '보리수 아래' 를 만들었다. 전국에서 모인 뇌성마비, 소아마비 장애인 불자들이 월 1회 정기모임을 가지고, 연 1회 정기공연을 하고 있다. 회원들의 문학 작품집과 음악 작품 제작도 했다. 회원들을 설득해 재적 사찰 등록하기와 사찰마다 장애인 고용 추진 운동에도 주력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발원했던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뤄진 셈이다.

"네가 장애를 가져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어머니였어요.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서 마음 아파요. 중학교 때 등교 버스에 올라 제 가방을 내려놓고 내리시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디 그것뿐이었겠어요?"

눈시울을 붉히며 한 최 대표의 고백이 모든 자식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라는 존재 앞에 서면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우리 자식들의 마음.

어머니의 등에 업혀가던 등굣길/ 그 길 위의 나무들과 모든 새들 꿈을 노래했었지/ 어린 나는 잘 몰랐었어/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알고 계셨지/ 바람 속에서도 나의 꿈이 커갈 것을

-최명숙의 〈어머니의 노래〉

〈작가〉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